

질을 잘못 이해하거나 편향된 지식이나 가치관이 개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화기의 신문지는 언론으로 명명되지 않았다. 언론을 구성할 수 있는 매체로 본 것이다. 방송 역시 일제하에서는 언론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해방후 대중보급이 이루어지고 공중의 여론 수렴 창구가 되면서 언론으로 명명되기 시작했다. 이럴 경우 언론으로 인식이 성립되지 않은 실재에 대하여 그 이후의 실용태 개념으로 유추 규정하여 명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III. 매체의 계보

언론의 영역 설정을 위하여 먼저 언론, 출판, 정보의 관계를 먼저 제기하는 이유는 이들이 매체를 통하여 상호 접합하고 있고 일정한 부분은 오해로 인한 혼돈이 야기된 점도 있기 때문이다.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언론의 영역 규정이 보다 원만하게 된다. 한국의 근대 언론 출판 정보는 모두 개화기 이후 매체를 통하여 성립되지만 개인 또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상당한 기간동안 각성이 늦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정보라는 말은 개화기의 외국 사조 수용과 함께 information이라는 말이 영문으로는 사용된 흔적이 있으나 일제가 “정보”라는 말을 만들어 일반화하는 1920년대가 되기 이전까지는 “통지” 또는 “사정의 전달” 등의 표현으로 모호한 상태로 있어 왔다. 신문 잡지 방송 등 대중매체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동안에 야기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융합 시대에 언론상(言論相)의 설정 문제에 직면하면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고, 언론 관계 법제에서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언론, 출판, 정보의 생태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매체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일이다. 매체가 없다면 어느 것도 가능하지 못하며 매체는 의사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언론 출판 정보를 담는 기능을 한다. 매체는 인간의 지혜 각성, 실용화, 취향에 따라 부단히 새로운 공학기술 요소가 첨가되면서 계보를 이루어 개발되어 왔다.

언론, 출판, 정보와 관련한 매체를 인간의 지혜 각성과 사회의 변동에 따라 다섯 가지로 계보화 할 수 있다. 언론상의 형성 과정을 보면 매체의 종류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로 언론이라는 말이 사용된 실용태와 사용되지 않았지만 언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추정태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매체는 인간의 표현 활동을 담는 매개 수단이다. 매체란 물리적 의미도 있지만

그 자체로 이미 사회성을 수렴하여 생명을 내재한다. 매체를 보면 이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가는 사회의 언지양식(언지양식: communication mode)을 읽을 수 있다. 매체가 사회문화적 성립에 따라 가지는 상대성을 매체 생태라 한다. 매체생태는 담는 문법, 양식, 물리적 특성에 따라 제 1, 2, 3, 4, 5매체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매체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연물 그 자체를 이용하는 양식이다. 가장 원시적이며 인간의 구성 지혜가 아직 미망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시대에 이용된 실물들이다. 제 2매체는 소리 신호 기호 그림 등 조형성이 보다 가미된 매체이다. 공동체의 조직 관계를 중심으로 공유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의미도 전달하지만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다. 언론, 정보의 양식이 있었지만 언론 정보에 대한 각성의 정도는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제 3매체는 언어 문자중심의 언문 매체이다. 언문 매체의 활용은 인간이 창조한 문화를 지식과 정보로 누적 가능하게 하였다. 언문 매체의 상용화로 비로소 언론, 정보의 인식이 체계화되고 출판도 발생한다. 체계화되고 일정한 표현문법을 가지며 사회에 따라 전승한다. 제 4매체는 대중매체이며 대량 구체화된 사회에서의 수단이다. 언론, 정보, 출판이 체계적으로 제도문화를 이루는 시대이다. 제 5매체는 사이버 매체이며 인터넷, PDA, 모바일 폰 등 전송과 수신 단말기가 분리되어 있고 디지털 공학기술에 기초한다. 제 3매체 시대의 언론이 새롭게 변환된 모습으로 현재 실용화되고 있다.

이러한 매체들을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어 계보화 해볼 때 “언론”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제 3매체인 언어 문자 대중화 시대에 공통된 현상이지만 인간관과 사회관에 따라 다르게 정착하면서 제도화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은 언론 출판 정보의 사회적 실용화에 따른 자유가 핵심주제가 되어 왔지만 동양에서는 개인의 심성 각성과 수행에 의한 인본성의 달도(達道)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면서도 이를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서양보다 늦게 이루어 졌다.

말은 공동체의 공통된 매체가 되지만 문자는 특정 계층이 점유하는 특정 수단이 되어 지식과 정보를 특정 계층이 공유하는 시대를 지나게 되는데 근대적 언론 출판의 특성은 이러한 계급화된 사회로부터 인간 평등이 지배하는 사회 구현에 누구나 참여하는 수단으로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국가들이 서양의 근대성을 수용하는 과정에 언론의 제도화는 바로 이러한 점을 전제하여 진행된다.

다양한 매체가 다양한 양상으로 사회에 보급되어 정보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사회의 다원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인간이 개별적으로 가져온 개체성의 사회적 실천을 성취하는 길도 된다. 다섯 가지 계보의 매체 중에서도 제 3매체 이

후 제 4매체로 진입하면서 언론 출판 정보의 혁명과 함께 시민사회의 출현을 보게 된다. 이 사실은 서양이 동양보다 인본성을 한 단계 앞서 실천한 소치이기도 하다. 제 4매체로서의 신문, 방송, 잡지, 영화 등 공학기술을 응용한 아날로그 매체는 기존 정보 의견의 유통 혁명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자유와 권리 신장에 중요한 감시자, 보루 뿐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경계하는 제 4부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

제 5매체인 사이버 매체 계보는 제 1, 2, 3, 4 매체 계보의 기존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온다. 디지털 공학기술 원리에 의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지구촌 전체를 정보 권역화 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와 교류가 양방향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제 4매체의 질서와 함께 제 5매체는 새로운 양식을 구사하고 현실과 가상 공간이 동시에 융합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제 4매체까지 구축해왔던 언론 출판 정보의 제도화에 대한 개선과 혁신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너무나 빨리 변혁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생활 속에서 실험하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가속적으로 표현 질서의 변혁이 오고 있다.

IV. 서양의 speech, press, information 생태와 계보

우리 사회에 서양의 언론 출판 자유가 소개되고 헌법이나 사회 연구에서 소개 또는 제도화된 부분을 살펴 보면 “speech”는 “언론”으로, “press”는 “출판”으로 번역되고 있다. press는 그후 정기간행, 신문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한국의 언론 출판을 재검토해 보기 위해 먼저 서양의 사상적 구축 계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적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의 가장 원형은 그리스에서 출발하여 18세기 영미 대륙의 시민 사회 성립과 함께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플라톤의 <공화국>에서는 공동체(community)의 원만한 성립에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보장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었다. 단지 여성과 노예의 참여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이 당시 언론이란 연설, 토론, 논쟁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임을 추정해볼 수 있다. 수사학은 지식의 생산에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은 수사학적 기교에 의한 무지의 각성이다. 인간은 이성(rationale)을 가지며 이는 언론(speech)에 의한 자기 각성을 유도하는 방법이다.